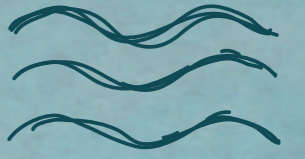


디지털 통



01/ NIA 뉴스

- 한-루마니아 ICT DAY 개최를 통한 친한국 ICT협력 파트너십 강화 (11.15-11.17)
- NIA-LH-통신3사,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기인터넷서비스 공동구축 협약 체결 (11.24)
- NIA-한국교육학술정보원, ICT 콘텐츠 활용으로 개도국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11.28)
- NIA-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전문교육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11.29)
- 제7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제4차 산업혁명, 왜 공공데이터에 주목하는가』 개최 (12.1)
- 지능정보시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스마트워크 콘서트 공감(共感)』 개최 (12.7)
-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공동협력사업 완료보고회 및 전자정부 학술포럼 개최 (12.7)
- ICT를 활용한 지속가능개발의 주역, 월드프렌즈 ICT봉사단의 값진 경험 공유 (12.9)
- 미래부-NIA, 조지아에 정보접근센터 개소하여 글로벌 정보격차해소와 국내IT기업진출에 공헌 (12.13)

02/ NIA 보고서

- [NEAR Future Monthly] 해외 발생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이슈맵
- [NEAR Future Weekly] 美 대선 결과는? 인공지능 vs 여론조사 (11월1주)
- [NEAR Future Weekly] 100만 촛불과 함께 빛난 성숙한 시민의식 (11월2주)
- [NEAR Future Weekly] 국내외 악재 속 국가별 자국민 보호정책 확산(11월3주)
- [NEAR Future Weekly] 비폭력 평화 기조 속 정권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 촛불집회(11월4주)
- [IT & Future Strategy]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본 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방향
- [Big Data Monthly] 영업, 전략기획, 개발에서의 IoT와 Bigdata의 가치 등
- [국가정보화법제연구]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
- [Hot Issue 리포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전망과 시사점
- [전자정부 글로벌 뉴스레터] D. gov Share (Vol. 03)
-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D. gov Edge (2016-11월호)
- [전자정부 기획보고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전자정부
- [발표자료] 2017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설명회 자료집
- [발표자료]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 변화” 세미나 발표자료

03/ ICT 인사이트

- [ICT Tourist]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현장을 방문하다
- [ICT Viewer] 공공데이터포털 국내외 동향분석
- [ICT Viewer] 향후 ICT SW분야 투자방향
- [ICT Viewer] SW교육 의무화에 따른 뜨거운 코딩열풍
- [ICT Viewer] 정보공개를 통한 열린정부 구현
- [ICT Viewer] 공공데이터의 미래, 데이터 품질이 책임진다

04/ 포토앨범

- 신입직원 임용식
- 서귀포지역 감귤농가 일손돕기 봉사
- 제1회 NIA 사진전 개최

05/ 12월 NIA 행사

06/ 디지털통 다시보기



NIA News

한-루마니아 ICT DAY 개최를 통한 친한국 ICT협력 파트너십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 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국과 루마니아의 ICT 협력 확대를 위한 한-루마니아 ICT DAY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루마니아 통신정보사회부 카르멘 엘리안(Carmen Elian) 차관, 국립정보연구소 데세벌 포페스쿠(Decebal Popescu) 원장을 비롯하여, KT, LGNSys 등 양국 기업관계자 80여명이 참석, 2014년 개소한 한-루마니아 ICT협력센터(이하 ITCC)의 3년 운영('14~'16)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6개 ICT 기업이 IT협력센터를 통해 수행한 사이버 포렌식(부더넷),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LGNSys), 클라우드 컴퓨팅(KT), 침해대응체계(AhnLab), e-Trade(KTNET), 전자문서(Intergen) 등 첨단 ICT기술의 활용을 통한 정부3.0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루마니아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공유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국 정부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루마니아 협력센터의 운영종료 이후에도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루마니아 ICT 중장기 전략 추진에,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16일에는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분야 등의 국내 ICT 기업(6개)과 루마니아 ICT 기업(8개)이 1:1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NIA 서병조 원장님은 이번 행사가 그간 이뤄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는 뜻깊은 자리이며 ITCC 운영 종료('16.12.31)후 에도 NIA는 양국의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과제 발굴, 인력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국제IT협력센터(ITCC)사업은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과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년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양국 공동협력사업의 수행, 컨설팅, 기술·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3년 멕시코협력센터를 시작으로 6개 센터를 운영종료하고 현재 2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벨라루스와 브라질 협력센터를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NIA News 

NIA-LH-통신3사,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가인터넷서비스 공동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SK브로드밴드(대표 이인찬), (주)케이티(대표 황창규), (주)씨제이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은 지역간·계층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가인터넷 공동구축”업무협약을 24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민간 5개 기관은 △임대아파트 등 기가인터넷 미구축 아파트 기가인프라 공동구축 추진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소, 시설 활용에 대한 적극 협조 △기가인터넷 공동구축 추진시 제반되는 비즈니스 협력 등을 통해 전국단위 기가인터넷 보급 활성화와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선도 기관으로 정부의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전국 85개시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90% 달성을 목표로 통신사, 케이블 사업자 등과 함께 기가인터넷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85개시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는 60%를 달성하였으나 구도심 지역과 임대아파트 등 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선로개통이 어려운 지역은 기가인터넷 서비스 보급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NIA News

NIA-NH-통신3사.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가인터넷서비스 공동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 870개 아파트 단지를 유형별로(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국민 행복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유·무선 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홈 구현을 앞당기고, 노인복지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ICT기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주거서비스 정착과 주거안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ICT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통신사와 케이블 사업자간 업무협력을 통해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공동구축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민간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먼저 2016년에는 시범적으로 경산시, 밀양시, 강릉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국민임대, 영구임대) 3곳, 총 1,562세대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공동구축을 추진하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와 노인정 등 공동시설에 무료 기가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단지 내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예정입니다.

금번 업무협약서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등 기가인터넷 공동구축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국 기가인터넷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한 주거환경 확대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향후 국민 누구나 미래 지능정보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하셨습니다.

NIA News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구축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콘텐츠 활용하여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원장 서병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원장 한석수)은 28일 오전 대구 NIA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도상국 정보이용환경 개선 등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NIA가 45개국에 구축한 50곳 정보접근센터(IAC)에서 KERIS의 ICT ·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 290개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진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ICT 및 한국문화 강의 콘텐츠 공동 활용 △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및 개도국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 혁신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협력 △ 기타 교육정보화 및 글로벌 협력사업 등의 업무 교류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그동안 각기 진행해오던 글로벌 협력사업의 독자적 추진체계를 탈피, 공동 플랫폼을 개발도상국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업 시너지를 증대시키는 협업과 정부3.0의 좋은 선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접근센터(IAC · Internet Access Center)는 약 330㎡ 규모의 인터넷라운지, 정보화교육장,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IT센터입니다. NIA는 2002년부터 IAC 구축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45개국에 50개 센터를 구축,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와 국내 IT기업의 해당국 진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NIA 서병조 원장님은 “연결과 협업이라는 디지턨의 기본 정신은 물론,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조직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 · 협력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비전에 부합하는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ICT 전문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구축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콘텐츠 활용하여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참고]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 지원 현황

| 구분 | 구축국가 | 구축지역 | 구축기관 | 개소 |
|----|--------|---------|---------------|-----------|
| 1 | 캄보디아 | 프놈펜 |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 '02.11.25 |
| 2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 | 국립 경제대학 | '03.10.16 |
| 3 | 베트남 | 하노이 | 우전통신 교육훈련센터 | '03.11.05 |
| 4 | 이집트 | 카이로 | 이집트 여성개발연합 | '04.03.03 |
| 5 | 필리핀 | 마닐라 | 필리핀 무역훈련센터 | '04.10.15 |
| 6 | 불가리아 | 소피아 | 소피아 정보기술통신청 | '04.12.20 |
| 7 | 라오스 | 비엔티안 | 라오스 직업훈련원 | '05.05.27 |
| 8 | 튀니지 | 튀니스 | 튀니스 과학단지 | '05.11.15 |
| 9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우정국 | '06.07.04 |
| 10 | 나이지리아 | 아부자 | 기업기술센터 | '06.11.14 |
| 11 | 몽골 | 울란바타르 | 울란바타르대학 | '07.06.15 |
| 12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 | '07.10.25 |
| 13 | 케냐 | 나이로비 | 케냐 멀티미디어대학교 | '07.11.09 |
| 14 | 과테말라 | 과테말라시티 | 산 까를로스 대학 | '08.06.19 |
| 15 | 모잠비크 | 마푸토 | 기술개발센터 | '08.09.23 |
| 16 | 스리랑카 | 콜롬보 | 국립경영교육원 | '08.12.15 |
| 17 | 아제르바이잔 | 바쿠 | 국립바쿠대학교 | '08.12.17 |
| 18 | 방글라데시 | 다카 | 방글라데시 공대 | '08.12.17 |
| 19 | 모로코 | 라바트(살레) | 국립 모하메드 5세대학 | '09.08.31 |
| 20 | 알제리 | 알제 | 우정정보통신교육원 | '09.09.02 |
| 21 | 파라과이 | 아순시온 |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 '09.11.26 |
| 22 | 페루 | 리마 | 페루 국립영재학교 | '10.03.17 |
| 23 | 볼리비아 | 라파즈 | 볼리비아 문화부 | '10.10.25 |
| 24 | 키르기스스탄 | 비슈케크 | 키르기스 공과대학 | '10.12.27 |
| 25 | 요르단 | 만 | 알 후세인 빈 탈랄 대학 | '10.12.30 |

| 구분 | 구축국가 | 구축지역 | 구축기관 | 개소 |
|----|---------|--------|---------------|-----------|
| 26 | 르완다 | 키갈리 | 키쿠키로 공과대학 | '11.03.01 |
| 27 | 네팔 | 포카라 | 포카라 대학교 | '11.11.04 |
| 28 | 우크라이나 | 키예프 | 인재양성 국제대학교 | '12.03.02 |
| 29 | 가나 | 아크라 | 국립 가나 대학교 | '12.04.13 |
| 30 | 파나마 | 파나마시티 | 파나마 지식의 도시 | '12.09.24 |
| 31 | 몰도바 | 키시네프 | 정보기술통신부 | '12.08.14 |
| 32 | 미얀마 | 네피도 | 네피도 중앙우체국 | '12.10.12 |
| 33 | 베트남 | 타이응웬 | 타이응웬 대학교 | '12.11.21 |
| 34 | 콜롬비아 | 보고타 | 카톨릭 대학교 | '12.11.23 |
| 35 | 파푸아뉴기니 | 포트모르즈비 | 공무원행정연수원 | '13.12.13 |
| 36 | 인도네시아 | 반다르람퐁 | 다르마자야 정보경영대학 | '13.12.02 |
| 37 | 도미니카(공) | 산토토밍고 | 공공행정부 | '13.12.02 |
| 38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 | 과학기술부 | '13.12.20 |
| 39 | 벨라루스 | 민스크 | 하이테크파크 | '14.09.24 |
| 40 | 코스타리카 | 산호세 | 국립기술대학교 | '14.11.19 |
| 41 | 온두라스 | 테구시갈파 | 국립교육대학교 | '14.12.31 |
| 42 | 우간다 | 캄팔라 | 국립정보기술청 | '14.12.31 |
| 43 | 니카라과 | 마나과 | 아리엘 달스 지역센터 | '15.12.02 |
| 44 | 베트남 | 라오까이 | 라오까이 사범대학교 | '15.12.07 |
| 45 | 팔레스타인 | 라말라 | 알비레시 | '15.12.16 |
| 46 | 부탄 | 팀푸 | 왕립경영교육원 | '15.11.23 |
| 47 | 르완다 | 키갈리 | 르완다교육대학교 | '16.예정 |
| 48 | 캄보디아 | 프놈펜 |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 '16.예정 |
| 49 | 조지아 | 트빌리시 | 미르자겔로바니청소년도서관 | '16.예정 |
| 50 | 마다가스카르 | 안타나나리보 | 국립과학기술대학 | '16.예정 |

NIA News 

NIA-중앙교육연수원,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전문교육 향상을 위한 업무 협력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원 회의실에서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전문교육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화역기능 예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강사 및 교육시설 등 교육자원 공동 활용 △연수사업 협력 등의 업무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윤리 확산 및 사이버폭력 예방 전문역량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선도자 양성기능이 연계되어,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정립과 윤리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인터넷윤리교육, 정보격차 등 ICT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직무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교수학습능력 향상과 학교현장의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필요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정일용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정립과 정보윤리 확산을 위해 정보화 연수과정을 확대 개설·운영하고, 양 기관의 연수자원의 공동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CT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통신사와 케이블 사업자간 업무협력을 통해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공동구축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민간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NIA News 

한국정보화진흥원, 제7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개최하여 공공데이터활용 신 비즈니스모델 제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12월1일(목),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공간인 오픈스퀘어-D에서 '제7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 왜 공공데이터에 주목하는가?(부제: 공공데이터, 어떻게 기업을 바꾸었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엔코아'의 김옥기 센터장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에는 데이터 기반 경영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문 관광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지도API를 개발한 '에스엔비소프트' 이종훈 팀장은 데이터 가공 및 중개 기업의 역할을 소개하며, 현재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밀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신(新)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을 개발한 '뉴스젤리' 정병준 대표는 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유희주차면 공용 서비스를 통해본 데이터 공유 경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만 공공데이터활용지원 센터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능정보사회가 시작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역할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을 위해 민간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앞으로 오늘과 같은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NIA News 

지능정보 시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스마트워크토크콘서트 공감(共感)개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지능정보 시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스마트워크 토크콘서트를 12월7일(수),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워크 : 시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근무방식을 탈피하여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재택근무, 유연근무, 탄력근무, 모바일 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을 의미함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 기술이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뿐 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능정보 시대의 스마트워크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워크 토크콘서트에서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스테판리프 박사(Dr. Stefan Rief)와 이경상 스마트워크포럼 간사를 비롯한 국내외 스마트워크 전문가분들과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연진인 알베르토 몬디를 모시고, 지능정보 기술이 인간의 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인사의 초청강연과 미래부의 “2017년 스마트워크 확산 전략”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미래 스마트워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공감의 자리이자, 국내외 스마트워크 문화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며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NIA 서병조 원장님은 “2016년은 지능정보사회 도약의 원년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셨습니다.

NIA News 

한국정보화진흥원, 서귀포지역 감귤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진행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제주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및 일손 돕기 지원을 위해 8일(목) 서귀포시 신례1리 예촌마을에서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수확 및 재배를 위해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진행 된 이번 봉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 40여명이 참석하여 감귤 수확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서툰 손길이지만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서귀포 신례1리 김창업 이장은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들이

마을에 찾아와 일손을 도와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체 봉사 조직 NIA엔젤스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자격으로 지역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2007년 이후 고추 수확, 사과나무 가꾸기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NIA News

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이 주관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투자사업(항만, 도로, 산업단지,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정착과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준비되었고,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12월 9일 세종정부청사, 12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 12월 20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원 등 권역별로 세 차례에 나누어 개최되었습니다. 그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수요조사 및 지원과제 선정 등을 거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교육부)”,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국토교통부)”, “부천시 상수도기반시설 고도화 사업(경기도)” 등의 대규모 SoC 사업과 “민원데이터 활용확대 및 고도화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국민권익위)”, “지능형 철도보안정보 통합관리 및 구축방안 수립사업(국토교통부)” 등의 정보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주체들간에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의 전파가 중요하다”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보화계획 수립 성공사례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여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7년도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17년 1/4분기중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제13조)과 동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해 정해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의미함.

-참고자료-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란?]

- ☞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 ☞ 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원 이상)
- ☞ 주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내용: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다른 정보시스템과 중복 여부 및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

NIA News

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

◆ 일정 및 시간계획

- (설명회 내용)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등 설명

| 구 분 |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14:00~14:20 | 20' |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
| 14:20~15:20 | 60' |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사례 발표 * 미래부 기 지원 사업 중 SOC유형별 사례 발표 | 주관기관 담당자 |
| 15:20~15:40 | 20' |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부문 적용 및 운영 사례 발표 | 컨설팅 업체 등 |
| 15:40~16:00 | 20' | 질 의 응 답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설명회 일정)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회 실시

| 구분 | 대상지역 | 설명회 시간 | 장소 | 비고 |
|----|------------|----------------------|--------------------------|---------------------------------|
| 세종 | 충청·전라지역 | 12.9(금) 14:00~16:00 | 세종 정부청사 6동 443호 대회의실 | |
| 서울 | 서울·경기·강원지역 | 12.15(목) 14:00~16:00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중회의실(1006호) | 참석자 규모에 따라 설명회 차수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
| 대구 | 경상·제주지역 | 12.20(화) 14:00~16:00 |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 본원 대강당 | |

NIA News 

NIA, 2016 한-인니 전자정부 공동협력사업 완료보고회 및 전자정부 학술포럼 개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12월 7일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eGCC)와 전자정부 공동협력사업 완료보고회 및 전자정부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NIA는 2016년 3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전자정부협력센터(eGCC)를 개소하고 한-인니 전자정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올해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이행계획 수립, 문서유통계획, 행정정보공유계획 컨설팅 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이번 과제를 위해 인니 행정개혁부, 통신정보부, 국가사무처 등 주요 9개 부처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통신정보부, 국가사무처 등에서 자체 개발한 문서유통관리시스템(Simaya), 정보공유시스템(Mantra)을 기 보유하고 있으며, 인니 부처 상호간 범정부적으로 행정문서와 정보를 연계·유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운영모델과 구축경험을 토대로 인니 환경에 적합한 개선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컨설팅 결과로 문서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범부처적 업무처리 절차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인니 대통령실을 비롯한 14개 정부기관에서 80여명의 전자정부 담당자가 참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인니 전자정부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전자정부 정책, 법제도, 모바일 전자정부, 데이터관리 등 한국 전자정부 추진경험과 인니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전자정부 학술포럼은 지난 2015년 8월 양국 간 체결한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운영 업무협약(MOU)에 따라 양국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국 정부의 기술·학술교류에 대한 열정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리니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협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고 행정자치부 이용석 과장(이번 대표단 단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기술·학술 교류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NIA 전자정부국제협력팀 김영희 팀장은 전자정부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혁신을 유도하여 전자정부 전문기관으로서 개도국 전자정부 추진에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NIA News

ICT를 활용한 지속가능개발의 주역, 월드프렌즈 ICT봉사단의 값진 경험 공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12월9일(금), 서울사무소에서 『2016년도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귀국보고대회』(이하, 귀국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봉사단원들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3.0 취지에 입각하여 봉사단원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場)으로 운영되었으며, NIA 김현곤 부원장님은 21개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ICT 기술로 개도국의 자생력 증진에 이바지한 561명의 봉사단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NIA는 총 138팀의 봉사단원 중 정보통신기술(ICT) 교육과 프로젝트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의 우수활동팀 15팀을 선정하고, 봉사활동 UCC/수기 공모전 우수작 10점을 선정했습니다.

대상(미래부 장관상)은 김담희, 김재만(이상 서경대), 김준규(한국외대), 김은비(서울여대)로 구성된 ‘Infinite Possible’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코스타리카 국립기술대학교에 파견되어 코스타리카 정보접근센터(IAC)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실시간 시설 예약 및 통계 관리 기능 등을 구현하여 해당 IAC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봉사단원 대상의 『UCC/수기 공모전』 응모작 38건(UCC 24건, 활동수기 14건) 중에서 『UCC 부문 최우수상』은 베트남 라오까이 지역에서 ICT 교육 및 한국문화 전파 등 다양한 활동을 재치 있게 동영상으로 제작한 김동환(송실대)씨가 차지했습니다.

『수기부문 최우수상』은 네팔 마차포카리 지역에서 ICT 수업의 감동적인 경험을 표현한 차유송(연세대)씨가 수상했는데요. 수상작들은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NIA 김현곤 부원장님은 봉사단원들에게 “해외봉사라는 값진 기회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NIA News

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조지아에 정보접근센터 개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은 12월 13일(화) 조지아 수도 티빌리시의 미르자 겔로바니 청소년 도서관에서 한-조지아 정보접근센터(IAC)를 열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개소식에는 지속경제발전부 기오르기 가하리아 장관, 외교부 하투나 토르투라제 차관, 교육과학부 타마즈 마르샤기슈빌리 차관, 티빌리시 타마즈 마르샤기슈빌리 부시장, 혁신기술청 아브탄달 까스라제 청장대리, 주조지아 한국대사관 김인환 대사대리, 조지아 시각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정보접근센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정보접근센터는 약 330㎡ 규모의 인터넷라운지, 정보화교육장,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IT 센터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3개국에 46개 센터를 구축해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와 국내 IT기업의 해당국 진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조지아, 마다가스카르, 르완다에 이어 캄보디아에 추가 구축하여 총 50개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조지아의 정보접근센터는 조지아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점자인쇄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현지 시각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지아는 우리 정부와의 정보화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조지아 정보접근센터 개소를 계기로 양국 간의 ICT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병조 원장님은 조지아 지속경제발전부 기오르기 가하리아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조지아 정보접근센터의 운영 방안은 물론 조지아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정보화 서비스, 정보격차해소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글로벌 ICT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NIA 보고서 

한국 정보화진 흥원

[NEAR Future Monthly]
해의 발생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이슈맵



[NEAR Future Weekly]
美 대선 결과는?
인공지능 vs 여론조사 (11월1주)



[NEAR Future Weekly]
100만 촛불과 함께
빛난 성숙 '시민의식' (11월2주)



[NEAR Future Weekly]
국내의 약재속 국가별 자국민 보호정책 확산
(11월3주)



[NEAR Future Weekly]
비폭력 평화 기조 속 정권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 촛불집회 (11월4주)



[IT & Future Strategy]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본
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방향



[Big Data Monthly]
영업, 전략기획, 개발에서의
IoT와 Bigdata의 가치 등



[국가정보화법제연구]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



[Hot Issue 리포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전망과 시사점



전자정부 글로벌 뉴스레터
: D. gov share (Vol. 03)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서비스
: D. gov Edge (2016-11월호)



[발표자료]
2017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설명회 자료집



[발표자료]
“지능정보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세미나 발표자료



ICT 인사이드 _[ICT Tourist]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현장을 방문하다



[ICT Tourist]

•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현장을 방문하다 •

#공공데이터 #청년창업 #고민 #도와는드릴게
#데이터분석 #AI #컨설팅 #열린TALK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활용팀 박지혜 주임연구원

바야흐로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현대인들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중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존폐가 갈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만은 않은 ‘공공데이터(Open Data)’가 존재한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보유·생성하는 지도 정보, 버스도착 정보, 날씨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를 말한다.

공공데이터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개방되었으며,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방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자리인 ‘공공데이터 창업토크’현장을 방문했다.

“공공데이터 창업토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개발 또는 창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열린 토크(TALK) 콘서트이다. 2015년 3월 제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데이터 활용 창업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1회 창업토크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대덕SW마이스터고, 대전·충청권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공데이터의 기본개념과 창업의 전반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며 성공적인 첫 포문을 열었다. 당시 행사에는 다음카카오 개발자, 벤처투자자, 창업진흥원 컨설턴트 등 관련 분야 대표자들을 패널로 모시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창업사례를 소개하였다. 상권·관광 데이터를 이용한 ‘레드 테이블(Redtable)’의 도해용 대표와 농생명 바이오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한 ‘씨더스(Seeders)’의 조성환 대표가 각자의 서비스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조언을 미래 전도유망한 창업인들에게 전달했다.

ICT 인사이드

[ICT Tourist]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현장을 방문하다



[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참석자 기념촬영]

뒤이어 제2회 창업토크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3회는 대구 영남대학교, 4회는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진행 모습]



[제3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모습 (1·2회 때와 달리 패널들이 좌식토크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회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의 청년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창업토크가 올해 10월, 벌써 6회째를 맞이해 이번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강원도의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제6회 창업토크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했으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소싱을 이용한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색에도 잘 어우러지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본 주제로 구성하였다.

토크패널에는 ‘크레딧데이터(주)’, ‘(주)아이오로라’, ‘(주)마인즈랩’ 등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네이버’, ‘유캔스타트’의 투자사가 자리에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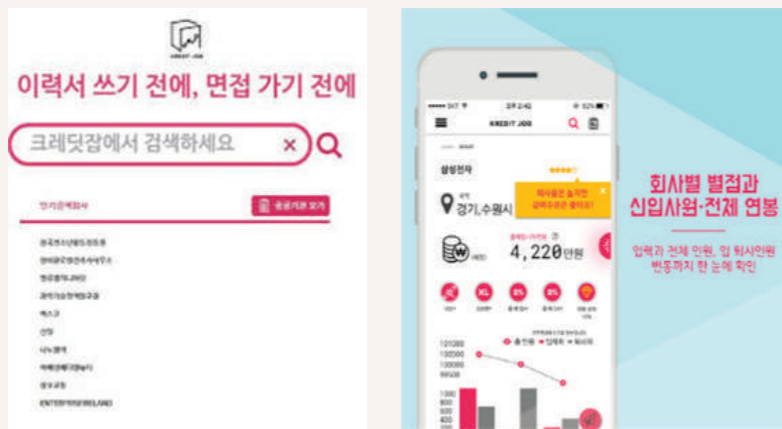
ICT 인사이드

[ICT Tourist]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현장을 방문하다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참석자 단체사진]

먼저 네이버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랩 등이 소개되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크레딧하우스'와 채용 정보 서비스 '크레딧잡' 두 가지의 활용 서비스를 제공 중인 '크레딧데이터(주)'의 조경준 대표가 그 뒤를 이었다. '크레딧잡'의 서비스 내용과 공공데이터 이용법,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취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과 소통했다.



[크레딧잡 서비스]

(주)아이오로라는 관광 데이터와 사진인화 기술을 접목한 '스타포터 키오스크'라는 흥미로운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아들 또는 남자친구에게 편지와 사진, 그리고 언제나 군인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냉동만두 등 PX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프트콘을 구매·선물하는 '아들에날린'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아직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날 참석자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곧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타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포터 키오스크]



[아들에날린 서비스]

'쥬마인즈랩'은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기업이다. 현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며, AI 튜터 양성과정을 진행 중이다.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는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 교육, 여행 등 여러 분야의 자동 응답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 7월, 70억 원 투자유치를 받은 소식과 함께 펀딩 유치 시에는 투자 가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전했다.

ICT 인사이드

[ICT Tourist]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현장을 방문하다



[마인즈랩 서비스]



[㈜마인즈랩 대표 및 직원]

※출처: 매일경제

마지막으로 '유캔스타트'의 투자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하였고,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창업 자금 준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팁을 전달했다.



[질의응답 및 열린토론 모습]

당일 본 행사는 일회용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사장 입구에 가로 15m, 세로 20m의 대형 아이 배너를 설치, 간이 전시 형태로 꾸몄다.

배너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배경부터, 그간 추진경과 및 데이터 분야별 대표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행사 시작 전, 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읽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외에도 4회 행사 때부터 실시한 '공공데이터 인지도 사전·사후조사'를 통하여, 관련 인지도 및 공공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창업 의사 및 창업토크 참여 소감과 피드백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향형 행사를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그간의 추진경과 전시]

ICT 인사이드

[ICT Tourist]
제6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현장을 방문하다

토크 중에는 총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인들과 데이터 활용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단 한 번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이 날 공공데이터 창업토크는 주로 서울·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벗어나고, 획일적인 세미나 형식을 탈피, 수요자에게 직접 다가가 공공데이터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창업 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향후 겪게 될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의, '누구(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지 사전에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지속될 공공데이터 창업토크의 다음 토크 주제는 무엇일지, 또 어떤 곳에서 누구와 또 어떤 스타 기업의 토크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바이다.



ICT 인사이드 _[ICT Viewer] 공공데이터포털 국내외 동향 분석



[ICT Viewer]

• 공공데이터포털 국내외 동향 분석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개발팀 이재원 수석

1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일을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가 대신하였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기계가 대량 생산을 시작하였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기계가 자동화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지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기계와 사람, 산업과 산업이 초연결(hyper-connected)된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데이터가 있다. 즉, 모든 사물들이 생성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서비스 기업들은 다량, 양질의 융·복합 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 창출 원동력으로 양질(良質), 다량(多量)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을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공급 역량 강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각국의 동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공공데이터 재가공을 통한 개방 필요

국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별로 생성·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민간 개방을 위한 범정부 통합 단일 창구로 구축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념도]

공공데이터포털은 파일 데이터, 오픈API, 표준데이터,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등을 민간에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이 제공하는 원문 데이터의 단순 개방 역할에

ICT 인사이드

[ICT Viewer]
공공데이터포털 국내외 동향 분석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은 지속적으로 가공 데이터의 개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능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용자가 선택한 관광지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함께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정보 이외에 주변 숙박시설, 식당, 교통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 전공자 혹은 개발자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데이터 가공에 대한 어려움 및 추가적인 비용·시간 소요를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데이터 가공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원문 데이터의 단순 개방 역할이 아닌, 정부 주도로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민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공공데이터 중 구직자의 이력, 구직 시간, 고용주 정보 등을 가공 분석하여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 중재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데이터 중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여 오픈지도 OpenStreetMap을 민간과 협업으로 구축·운영하며, 이를 공공데이터로 다시 미국 공공데이터포털(data.gov)에 개방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필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각 기관의 원문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LOD 개방 및 활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LOD는 오픈API에 비해 자유로운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매쉬업(Mash-up)이 용이한 데이터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공데이터포털은 LOD 개방 및 활용 플랫폼으로서 인프라가 미비하다. 반면, 영국은 자국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v.uk)를 구축할 때부터, LOD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5별점 오픈포맷 단계'에 맞춰 데이터 개방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오픈포맷 3단계(CSV, XML 등) 이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재정·법령·지리·교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LOD 개방·활용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은 시각화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있다. 국내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전국주차장, 전국도시공원 등)에 대하여 시각화 서비스 (차트, 그리드,

ICT 인사이드

[ICT Viewer]
공공데이터포털 국내외 동향 분석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포털에 개방 중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시각화 데이터 차트 생성(14종) 및 데이터 분석(군집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 공공데이터 시각화 예시]

미국과 영국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가 데이터 지도 구축 및 지도 기반 데이터 검색 서비스(Map-based Data Sear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민간(MIT, Data Wheel, Deloitte)를 중심으로 분석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문 시각화 채널(datausa.io)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미국 각 주(state) 정보(인구, 경제, 교육, 거주 등)에 대한 시각화 데이터(차트, 지도 등)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 datausa.io 예시]

호주는 전문 시각화 채널(National Map)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공공데이터를 3D 지도상에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공공데이터포털을 개편한 싱가포르의 경우, 실시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시각화 정보(차트, 지도)를 생성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대표 시각화 데이터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어 민간의 만족도가 높다.

ICT 인사이드

[ICT Viewer]
공공데이터포털 국내외 동향 분석



[호주 - National Map]



[싱가포르 - data.gov.sg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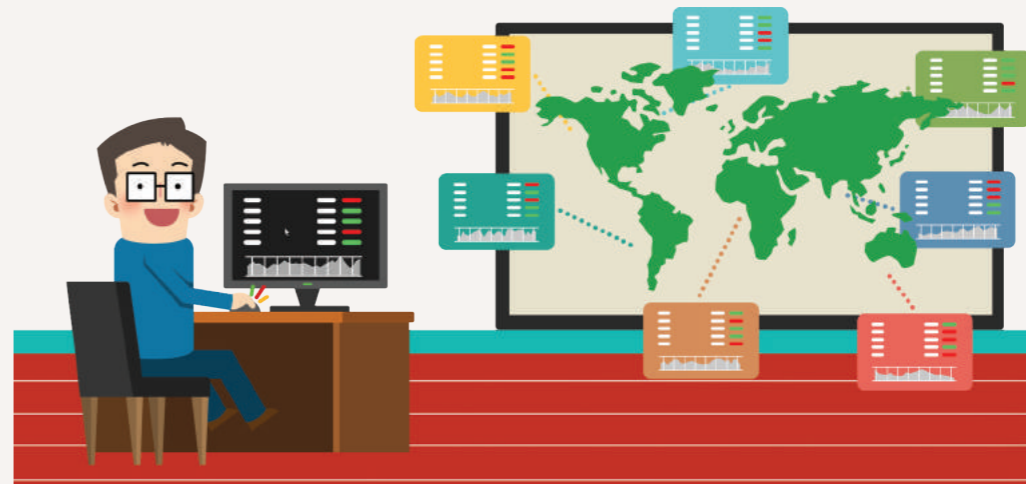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은 양질, 다량의 데이터 개방에서 활용까지 생태계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가 중심이 된다. 즉, 양질, 다량의 데이터를 생산·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가 창출될 때 지능정보사회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 개방에서 분석·활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LOD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다양한 시각화 서비스 강화 등 자국의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기술을 점차 확보 및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공공데이터포털도 데이터의

생산·저장·유통·활용까지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때이다. 세계 각국은 공공데이터를 통한 '정부 투명성(Transparency) 제고'에서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효과창출(Creating Value)'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주(競走) 중이다.

[참고자료]

1. <https://datausa.io>
2. <https://data.gov.uk>
3. <https://nationalmap.gov.au>
4. <https://data.gov.sg>
5. [리더스포럼]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데이터에 있다. (<http://www.etnews.com/20160226000180>)



ICT 인사이드 [ICT Viewer]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ICT Viewer]

•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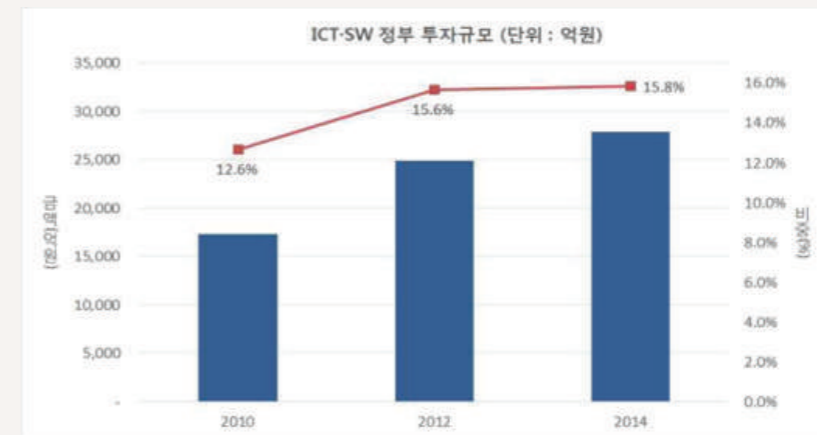
정책본부 ICT투자성과센터 우창완 선임연구원
 정책본부 ICT투자성과센터 유재공 주임연구원

정부 ICT · SW 분야 R&D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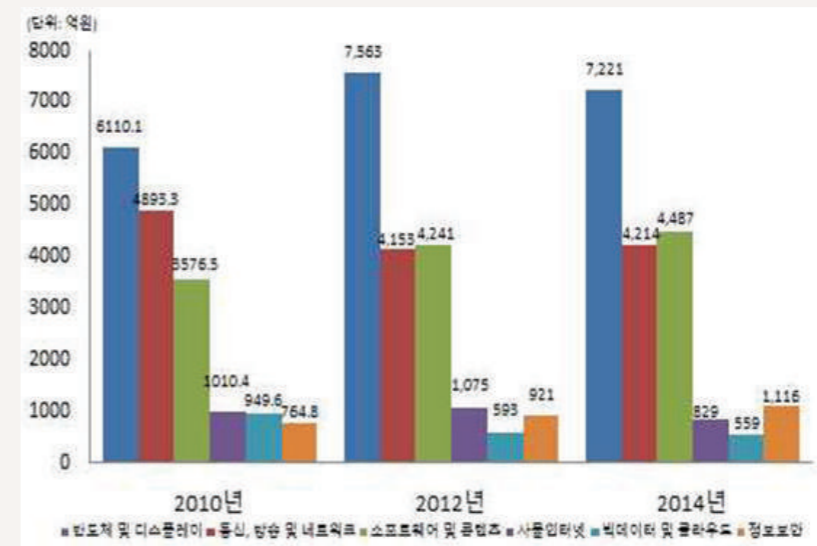
◆ 정부 R&D투자 중 ICT · SW 분야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통신 · 방송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비중 증가

글로벌 경제 위기,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창의 · 융합 기반의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여러 R&D투자 분야 중 ICT · SW분야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CT · SW분야의 세부 R&D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통신 · 방송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비중은 증가하였다.



[ICT · SW 정부 투자규모]



[ICT · SW 정부 투자비중]

※ 출처: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 인사이드

[ICT Viewer]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정부 R&D투자 규모는 '12년 2.49조원에서 '14년 2.79조원¹⁾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ICT · SW 분야의 정부 R&D투자 비중은 투자 총액('14년 17조6,395억원) 대비 15.8%(2.79조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39.2%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또한 '14년 기준 연구 개발 단계별 투자비중은 기초(12.8%), 응용(27.4%), 개발(43.2%)로 나타났고, 개발 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44.6%), 대학(15.2%), 대기업(6.1%), 중소기업(23.9%)로 나타났다.

민간R&D ICT · SW분야 투자는 정부R&D ICT · SW분야의 정부투자분야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정부투자 대비 민간R&D ICT · SW분야 투자 비중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분야(19.7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분야(2.6배)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 및 정보보안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는 정부투자 대비 민간투자의 비중이 높아, 시장규모와 공공성 등을 고려한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1)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중 ICT · SW 관련 중분류의 투자액 합계
2) 중분야별 투자비중 추산 시 기타전기전자 및 기타정보통신은 기타로 분류하여 제외

[정부 및 민간R&D 투자규모 비교(2013)]

(단위 : 억원)

| 구분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크 |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 정보보안 |
|---------|-------------|-------------|--------------|-------|-------------|-------|
| | | |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 | 사물인터넷 | | |
| 정부투자(A) | 11,467 | 4,455 | 6,875 | 1,093 | 576 | 1,123 |
| 민간투자(B) | 225,396 | 16,893 | 17,586 | 1,015 | 8,628 | 1,903 |
| 비율(B/A) | 19.7 | 3.8 | 2.6 | 0.9 | 15.0 | 1.7 |

※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6 ~ '18)」 재구성

주요 기술 동향 및 미래전망

- ◆ ICT를 중심으로 초연결시대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능형 반도체, SW, IoT,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보보안 수요 증가 예상
 - 각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 개발 및 이를 토대로 대규모 융합 연구 지원 필요성 증대
- ◆ 기초·원천 및 공공 수요가 많은 분야 정부 지원 확대, 신서비스 및 제품 지원을 위한 ICT R&D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활성화 지원

ICT 인사이드

[ICT Viewer]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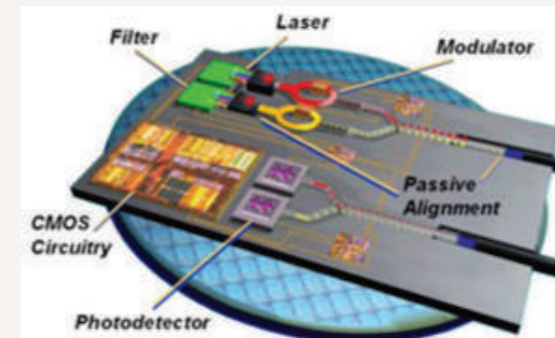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 ※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억 달러)
: ('14)3,545 → ('20)4,500 (연평균 4.1% 증가)
- ※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전망(억 달러)
: ('15)1,150 → ('20)3,520 (연평균 24.2% 증가)
-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억 달러)
: ('14)1,314 → ('20)1,517 (연평균 2.4% 증가)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시스템 반도체 :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
(출처 : 지식경제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2010. 11. 대한민국정부)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팅 시스템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산업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자동차·에너지·의료·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융·복합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초고집적메모리반도체 포함)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차세대 반도체, 광집적회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2.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 ※ 세계 소프트웨어·콘텐츠 시장 전망(억 달러)
: ('14)2조2,461 → ('20)2조9,174(연평균 4.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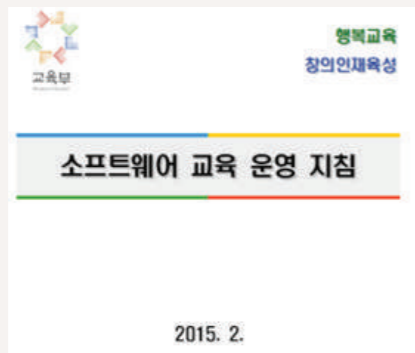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와 함께 정부는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상현실의 몰입감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 기술과 관련한 R&D를

ICT 인사이드

[ICT Viewer]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가상현실 콘텐츠 유통채널 마련을 위해 국내외 가상현실 콘텐츠 유통플랫폼 업체와 제휴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와 정부가 1:1 매칭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에 투자하고, 제작된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개발자는 제작비를 지원받고, 플랫폼 업체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



[삼성, VR 기어]

3.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크 분야

- ※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억 달러)
: ('14)2,370 → ('20)1조350 (연평균 27.8% 증가)
- ※ 세계시장 전망(억 달러)
: ('14)20,521 → ('20)25,188 (연평균 3.5% 증가)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터넷이 결합하여 만물이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의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사물인터넷은 전 산업분야와 융·복합되어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디지털 혁명시대를 넘어 초연결 사회를 선도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IoT 기술의 핵심SW 및 플랫폼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정부R&D 성과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를 위한 전략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구글, 자율주행자동차]



[독일 지멘스, 스마트 팩토리]

ICT 인사이드

[ICT Viewer]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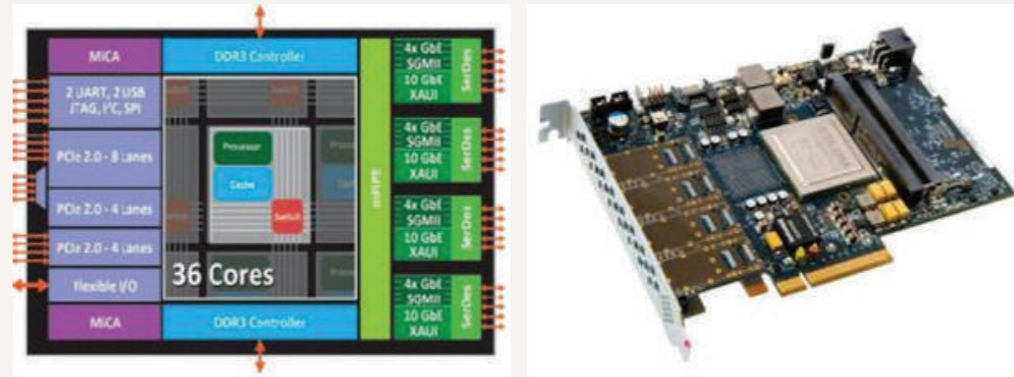
4.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

※ 세계 빅데이터 · 클라우드 시장 전망(억 달러)
: ('14)1,704 → ('20)4,257 (연평균 16.5% 증가)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K-ICT 전략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국가혁신형 연구개발(R&D) 중간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빅데이터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등 국가 혁신형 R&D를 산·학·연·관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국내 빅데이터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재난·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신기술 개발 및 선도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할 전망이다. 실시간 스트림형 데이터를 비롯한 융합형 빅데이터의 초고속 처리 기술과 같은 고성능 빅데이터 기술개발과 함께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가속화 시키는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 매니코어 및 인메모리 기반 실시간 분산/병렬 처리기술, 빅데이터 입출력 실시간화를 위한 I/O 가속 기술, 메모리 가상화 및 분산형 인메모리 DBMS 등



[매니코어 기술]

5. 정보보안분야

※ 세계 정보보안분야 시장 전망(억 달러)
: ('14)721 → ('20)1,146 (연평균 8.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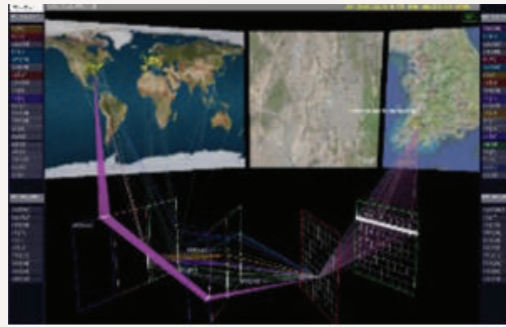
※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사물인터넷(IoT) · 클라우드 등 신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술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보안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간 R&D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규 서비스 정보보안 기술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다.

ICT 인사이드

[ICT Viewer]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특히 사이버테러 예방 대응기술, 국가 공공인프라 보안기술, 사회문제 해결기술 등의 확보로 국민이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TRI, 지리정보 보안기술]



[홍채인식기술]

◆ 향후 R&D투자 방향

- ◆ 경제혁신 선도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 기초연구 부처 협업사업화 및 재난·재해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 ◆ R&D 전주기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사업구조 개선

2017년 정부 R&D 투자 방향은 AI-로봇, ICT 융합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AI(인공지능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76.8% 대폭 증액하고, AI-로봇 융합 프로그램을 신설할 전망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R&D 사업(R&D 바우처, 후불형 R&D, 역매칭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2017년 시분야 및 기업 지원 투자 예산(안)

- 인공지능 기술분야('16년) 919 → ('17안) 1,626억원 (76.8% 증가)
- 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미래부) : ('17안) 100억원 (신규)
-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산업부) : ('17안) 146억원 (신규)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 ('16년) 874 → ('17안) 1,228억원 (40.6% 증가)
- R&D 바우처 지원사업 : ('16년) 3,775 → ('17안) 7,147억원 (89.3% 증가)
- 후불형 R&D : 60개 과제, 60억원 / 역매칭 지원방식 : 50개 과제, 79억원

※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편성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재난·재해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라 범부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기후변화체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부처 협업사업을 신설하고,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의 연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약('15.12월)에 대응하여 청정에너지 R&D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빌딩, 대용량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의 에너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 재난치안용 무인기시스템개발(안전처, 경찰청, 산업부, 미래부) : ('17안) 98억원
- *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환경성질환대응) : ('16년) 47→('17안) 60억원(27.5%증)
-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 ('16년) 148 → ('17안) 227억원 (53.2% 증)
- * 청정에너지 분야 : ('16년) 4,536 → ('17안) 5,844억원 (28.8% 증)
- * 에너지저장 분야 : ('16년) 368 → ('17안) 471억원 (28.1% 증)
- * 에너지수요관리 분야 : ('16년) 772 → ('17안) 881억원 (14.1% 증)

※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편성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ICT 인사이드

[ICT Viewer]
ICT · SW분야 R&D투자 전망

사전기획, 예타이행 여부, 평가결과 환류, 일몰 평가결과('16.3월) 반영 등으로 R&D 사업 전 단계의 효율성 강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비R&D성 사업의 이관·통폐합으로 낭비요인 제거하여 R&D 전주기 투자 효율성을 제고 및 사업구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한다.

[2017년도 기술분야별 예산 증감]

(억원, %)

| 구분 | '16 | '17 (안) | 비고 |
|-----------|---------|---------|--|
| 기초·나노 | 21,955 | 28,632 | 개인기초연구지원(8,755→10,130)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132→196) |
| 에너지·환경 | 23,199 | 23,515 | ESS기술개발(신규 437)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528→770) |
| 우주항공·생명 등 | 56,100 | 57,253 | 달탐사(200→710)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2,616) |
| 기계·제조·공정 | 15,164 | 14,876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722→884)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159→266) |
| 전자·정보 | 24,981 | 23,798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신규 70)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98→113) |
| 기타 | 49,544 | 46,297 | 인문사회 기초연구(1,364→1,514) 6개월챌린지및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204→241) |
| 합계 | 190,942 | 194,371 | 1.8% 증가 |

[2017년도 R&D분야 자원배분 현황]

(억원, %)

| 구분 | '16 예산 (A) | '17 예산(안) (C) | '16 대비 (C-A) | 증감률 |
|---------------|------------|---------------|--------------|------|
| 합계 | 190,942 | 194,371 | 3,429 | 1.8 |
| 주요 R&D | 128,742 | 129,740 | 998 | 0.8 |
| 일반 R&D | 62,201 | 64,631 | 2,430 | 3.9 |
| 과학기술 | 58,669 | 60,962 | 2,293 | 3.9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46,077 | 44,868 | △1,211 | △2.6 |
| 국방 | 25,981 | 28,254 | 2,273 | 8.7 |
| 교육 | 18,451 | 18,585 | 134 | 0.7 |
| 기타 | 41,764 | 41,702 | △62 | △0.1 |

※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편성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참고자료]

1.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기술심의회
2.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편성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3. 빅데이터 연구개발 심포지엄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4. 콘텐츠로 선도하는 가상현실(VR)산업 생태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5. 2016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이미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514134>
- <http://photohistory.tistory.com/12785>
- www.unjeong.es.kr/wah/main/file/download.do?id=9969_1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805834&memberNo=15460786&vType=VERTICAL>
- <http://thegear.co.kr/10607>
- <http://www.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idx=1200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1975751>
- http://blog.naver.com/with_msip?Redirect=Log&logNo=220824855104

ICT 인사이드 _SW교육 의무화에 따른 뜨거운 코딩열풍



[ICT Viewer]

• SW교육 의무화에 따른 뜨거운 코딩열풍 •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팀 임수혁 선임연구원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가능하게 했고, 이전에는 없던 공유경제혁신을 가져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이 사회의 변화에 가장 둔감하고, 보수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분야이다. 특히, 공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은 아직 그대로이다.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를 말하는데, 학교에선 아직 정보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에서 낯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수 있을까?

그랬던 학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바로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SW교육이 정규교과로 포함되어 모든 학생들이 SW를 필수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서 SW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초·중·고 SW관련 교육과정 개편 내용]

| 구분 | 현행 | 개편안 | 주요 개편 방향 |
|------|--------------------|--------------------------|--|
| 초등학교 | 실과 내 ICT 단원 (17시간) | 실과 내 SW기초교육 실시 (17시간 이상) | - 문제해결과정,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체험 - 정보윤리의식 함양 |
| 중학교 | '정보'과목 (선택교과) | '정보'과목 34시간 이상(필수교과) | - 컴퓨팅사고 기반 문제해결 실시 - 간단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개발 |
| 고등학교 | '정보'과목 (심화선택 과목) | '정보'과목 (일반선택 과목) | -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계 |

ICT 인사이드

[ICTViewer]
SW교육 의무화에 따른 뜨거운 코딩열풍

또한, 2018년도 SW교육 의무화를 준비하는 교육부와 미래부는 올초 SW연구·선도학교 900개 학교를 발표하였다. SW교육 선도학교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SW교육 의무화에 대비하여 정규교과과정 내 SW교육을 중점 운영하게 된다.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정규 교과과정으로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의 SW교육을 실시하며, 고등학교는 '정보'과목을 통해 SW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SW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렵듯, SW교육도 그 효과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SW를 가르칠 강사와 교보재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SW교육 의무화 정책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첫째, 학교에서 SW를 가르칠 강사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30%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6천 명에 대해서는 SW심화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학교 '정보'과목 교사 및 '정보·컴퓨터'자격증 보유 교사의 전체 인원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SW교사는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연차별로 확충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예비 교사를 위한 교육도 시작한다. 각 시도 별 직업교육원에서 코딩 교육과정을 개설해 예비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차례

| | |
|-------------------------------|-----|
| Part 01 소프트웨어교육 수업사수 확보 우수사례 | 1 |
| 01. 대안교육원 | 2 |
| 02. 강원도 교육청 | 3 |
| 03. 서울교육원 | 4 |
| 04. 부산교육원 | 5 |
| 05. 경기도교육청 | 6 |
| Part 02 소프트웨어교육 교수학습방법 우수사례 | 21 |
| 01. 경기도교육청 | 22 |
| 02. 인천교육원 | 23 |
| 03. 남양주교육원 | 24 |
| 04. 서울교육원 | 25 |
| 05. 부산교육원 | 26 |
| 06. 영남교육원 | 27 |
| 07. 제주교육원 | 28 |
| 08. 충청북도교육청 | 29 |
| 09. 경기도교육청 | 30 |
| Part 03 소프트웨어교육 동아리 운영 우수사례 | 89 |
| 01. 서울교육원 | 90 |
| 02. 울산교육원 | 91 |
| 03. 제주교육원 | 92 |
| 04. 인천교육원 | 93 |
| 05. 서울교육원 | 94 |
| 06. 울산교육원 | 95 |
| 07. 경상북도교육청 | 96 |
| 08. 경기도교육청 | 97 |
| 09. 서울교육원 | 98 |
| Part 04 소프트웨어교육 평가추진고 운영 우수사례 | 101 |
| 01. 서울교육원 | 102 |
| 02. 경기도교육청 | 103 |
| 03. 인천교육원 | 104 |
| 04. 서울교육원 | 105 |
| 05. 울산교육원 | 106 |
| 06. 서울교육원 | 107 |
| 07. 경기도교육청 | 108 |
| 08. 서울교육원 | 109 |
| 09. 강원교육원 | 110 |
| 10. 부산교육원 | 111 |
| 11. 서울교육원 | 112 |
| 12. 서울교육원 | 113 |

둘째, 교보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SW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텍스트 위주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 보다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과정과 참여기회를 확대할 포털을

ICT 인사이드

[ICTViewer]
SW교육 의무화에 따른 뜨거운 코딩열풍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정부는 SW교육 우수 선도학교를 선정해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다. SW교육은 강사SW교육 선도학교 운영 우수사례집 자체가 바로 하나의 교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례집을 통해 흥미있는 SW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고, 학생주도의 동아리 플랫폼을 형성할 수도 있다.

SW교육 교보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계에서도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구글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스크래치(Scratch)와 웹 기반의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 사에서는 게임 제작용 3D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두(Kodu)를, 네이버는 교육용 SW플랫폼인 엔드리(Entry)를 운영 중이다.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은 아이들을 위한 SW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시작 5일만에 목표모금액의 100%을 달성하는 등 민간차원에서도 SW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한다. “코딩을 배우세요. 당신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거든다. ‘15년 후 프로그래밍 교육을 보면서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를 개발한 마크 안드레센은 아예 “소프트웨어(SW)가 세상을 삼킬 것”이라고 단언한다. 코딩, 프로그래밍, SW. 사용한 단어는 다르지만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바로 ‘SW 인재가 돼라’는 것. 최근 기업에서 문제해결능력과

ICT 인사이드

[ICTViewer]
SW교육 의무화에 따른 뜨거운 코딩열풍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직원들에게 SW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SW를 학습한 아이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SW인재가 될 텐데 우리도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관 차원에서 SW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컴퓨팅사고력, SW역량,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자료]

1. [신문기사] “SW 공교육, 교재보단 실습용 서비스가 효과적” ZDNet Korea, 2015년1월21일자
2. [신문기사] “뜨거운 코딩 열풍... 우리 아이 코딩 교육 뭐로 하지”, IT조선, 2016년8월23일자
3. [신문기사] “SW교육에 빠진 기관·기업들”, 머니투데이, 2015년12월3일자
4. [신문기사] “SW 공교육, 교재보단 실습용 서비스가 효과적”, ZDNet Korea, 2015년1월21일자
5. [보도자료] SW와 콘텐츠, 소프트웨어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7월21일자
6. “우리아이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 달려라 코딩버스”by 업그라운드, 소셜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ICT 인사이드 _[ICT Viewer] 정보 공개를 통한 열린정부(Open Government) 구현



[ICT Viewer]

• 정보 공개를 통한 열린정부(Open Government) 구현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활용팀 엄세원 주임연구원

얼마 전, 서울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택·민원·교통·상권·공공 와이파이(WiFi) 등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기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울의 '올빼미버스(심야버스)'도 한 시민이 SNS에 올린 지하철이 끊긴 후 어떻게 집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글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개선 고민이 시작되었고, 통신사의 심야시간대 위치별 통화내역 데이터와 유동인구 분석을 통하여 심야버스 노선을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올빼미 버스노선]

※출처: 서울대중교통 사이트 <http://bus.go.kr/nBusMain.jsp>

요즘은 데이터 증거 기반으로 똑똑하게 일을 처리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책임성을 다하자는 다자간 협력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이 구축되었다. 현재 70개 국가가 참여하여 열린 정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2011년 OGP에 가입하여 열린 정부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ICT 인사이드

[ICTViewer]
정보 공개를 통한 열린정부(Open Government) 구현



[OGP 참여국 지도]

※출처: 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attachments/OGP_Booklet_digital.pdf

OGP Founding Member이면서, 타국의 열린 정부로서의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영국·미국 국가의 주요 열린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2010년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의 '세계 최고의 투명하고 열린 정부선언'이후, 정보 공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www.data.gov.uk 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공자금의 용처, 정부 인사들의 보수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일만 파운드 이상의 조달 품목, 500파운드 이상의 자치단체 지출 품목 등의 정부의 계약·지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는 정부상업서비스(CCS; Crown Commercial Service)가 관리하는 모든 계약 과정과 관련된 정보 문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기관들의 계약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계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거주 지역의 범죄율과 안전도, 경찰연락망과 범죄 방지 조언, 지역별 경찰의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책임성 역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 에너지, 기상, 교육, 금융, 공공 안전, 국제 개발 부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열린 정부를 도입해 왔다. www.data.gov 를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나 교육, 기술, 직업, 임금 등에 대한 노동 관련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목표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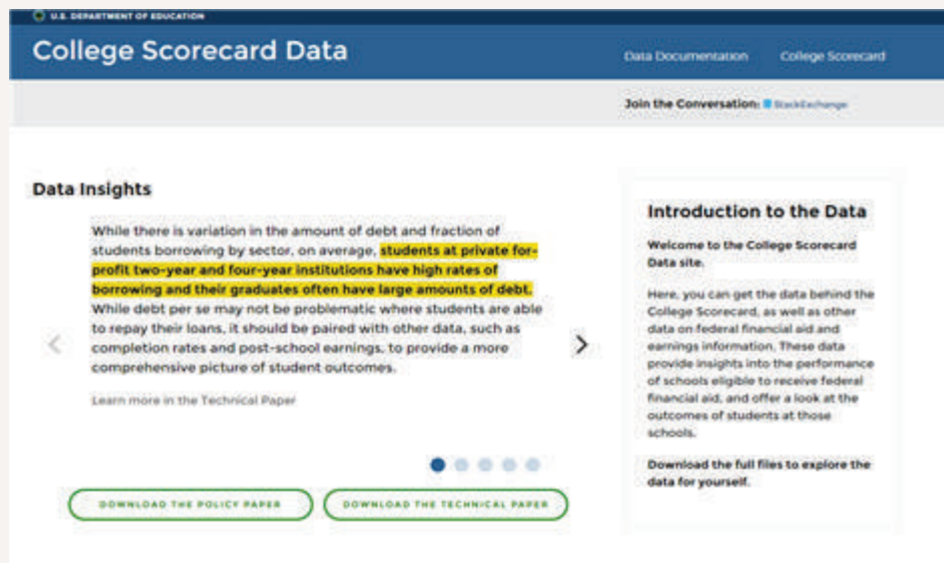
또한, 시민 중심의 접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생활에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식과 툴을 제공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College Scorecard로 국세청(IRS) 자료를 활용해 해당 대학 졸업생이 10년간 회사에서 벌어들인 평균 소득을 집계하여 공개하는 서비스이다.

ICT 인사이드

[ICTViewer]

정보 공개를 통한 열린정부(Open Government) 구현

이 서비스를 통해 각 학교 졸업생들이 얼마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 그들의 부채는 얼마인지, 학자금 대출을 갚은 졸업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이 정보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역할을 다하고 있다.



[Colleges Scorecard Data 소개]

※ 출처: <https://collegescorecard.ed.gov/data>

우리나라도 정부3.0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방하고 있다. 정보공개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도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에게 정부의 책임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 1)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정책(2010-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2010-to-2015-government-policy-government-transparency-and-accountability/2010-to-2015-government-policy-government-transparency-and-accountability>>
- 2) FACT SHEET: U.S. Global Development Policy and Agenda 2030, 2015.9.27,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9/27/fact-sheet-us-global-development-policy-and-agenda-2030>>
- 3) 오바마 “졸업생 10년간 평균소득으로 대학 평가해야”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11&newsid=01823686609499792&DCD=A00801&OutLnkChk=Y>>
- 4) 열린정부파트너십 대표 사이트 <<http://www.opengovpartnership.org>>

ICT 인사이드 _[ICT Viewer] 공공데이터의 미래, 데이터 품질이 책임진다



[ICT Viewer]

• 공공데이터의 미래, 데이터 품질이 책임진다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개방팀 오현목 수석연구원

2013년 1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1만 7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데이터 이용 건수도 1만 4000여건에서 올해 100만 여건을 넘어 77배나 증가했다. 또한 민간 수요가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3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지난해에는 11대 분야 약 28억 건이 개방되었다.

이렇듯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쓸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불만과 함께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품질 오류로 실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민간 수요자들의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활용하기 좋은 개방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급선무이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국민 활용 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민간 활용이 높은 21개 DB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표준 확대 제정,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

최근 오픈소스, 컴퓨팅파워 향상, 빅데이터 활용 증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정보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핵심에는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방대한 데이터 중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그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다.

공공데이터는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와 다르게 정부 기관간의 연계된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의 흐름이 복잡하다. 이러한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의 관점에서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표준화, 관리체계구축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진단’은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DB)의 코드·관계·업무규칙 등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현행 DB의 값과 구조에서 중복이 있는지, 비효율적인 설계가 되지는 않았는지, 변경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의 진단 과정을 거쳐 개선을 수행하게 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생명주기를 고려해 계획/구축/운영/활용 등 각 단계마다 품질관리 활동을 정의하고 기관차원의 품질관리 활동이 국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ICT 인사이드

[ICTViewer]
공공데이터의 미래, 데이터 품질이 책임진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를 통해 데이터 질 향상에 집중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란 공공기관들이 개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및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준평가는 품질관리 지표를 수립하여 데이터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최상위)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품질관리체계(Process) 및 개방데이터 품질(Value)을 진단하여 각 평가등급을 부여한다.(그림 1. 참조)

2016년도 수준평가는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평가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민간의 품질관리 전문평가원을 투입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수준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을 개발, 시범적용을 통해 평가모델을 검증하고,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올해에는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림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급 체계]

‘품질관리 체계(Process)’는 조직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담당자 인터뷰, 증적자료를 통해 4개 영역, 11개 프로세스의 충족요건을 판정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개방데이터 품질(Value)’은 개방(관련 원천)데이터를 오류진단 프로파일링을 통해 4개 영역, 14개 항목의 오류율에 따른 등급을 판정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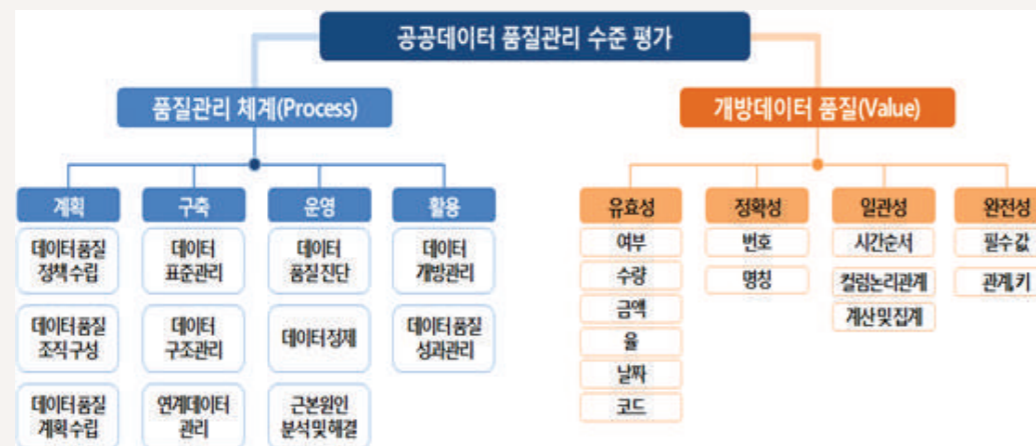
지난 2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4월에는 평가대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ICT 인사이드

[ICTViewer]
공공데이터의 미래. 데이터 품질이 책임진다

수준평가제도 및 평가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전문평가원 양성교육을 통해 평가원을 양성하여 현재 이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준평가 대상은 △농축수산물가격정보DB, △실시간수도정보DB, △상권DB 등 지난해 개방된 11개 국가중점개방DB와 △버스정보DB, △관광정보DB 등 민간 활용이 매우 높은 10개 DB이다.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평가항목]

개방 표준과 오픈포맷 확대 등 품질개선 강화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형식, 내용 등이 제각각 다르게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정보를 활용하는 개인·기업은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 넣고,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항목을 표준화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표준 데이터셋을 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주차장정보, △CCTV, △어린이집 등 52종의 개방 표준이 제정되었다. 표준데이터 등록 시 데이터셋 보유기관의 표준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개방표준 데이터 점검 서비스(www.gooddata.go.kr)'도 마련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시각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가공과 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형식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픈포맷은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법적인 규제 없이 활용 가능한 파일형태이다. 현재 약 50%인 비중을 올해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ICT 인사이드

[ICTViewer]
공공데이터의 미래, 데이터 품질이 책임진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민간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개방데이터(파일데이터, 오픈API)에 대한 품질오류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해 개방데이터의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오류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품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에서 보유·축적하고 있는 데이터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품질·개방 체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넘쳐도 지나쳐도 좋은, 데이터 품질

올 해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대 분야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기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속적 양질의 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품질진단,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각 소관 부처가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에 힘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수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등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정은 올 해 말까지 21종을 추가할 것이고 2017년까지 총 100종의 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픈 포맷도 70%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 자동전환 툴을 개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 활용의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품질개선 활동을 통해 개방데이터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3.0에 따른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품질개선 활동은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산업 활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포토 앨범 _신입직원 임용식



포토 앨범 _ 서귀포지역 감귤농가 일손돕기 봉사



포토 앨범 _ 서귀포지역 감귤농가 일손돕기 봉사 



포토 앨범 _ 제1회 NIA 사진전 개최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1 | 2 | 3 |
| 4 | 5 | 6 ▶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 7 ▶ 스마트워크 토크콘서트 공감 (共感) 개최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 8 ▶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 변화 세미나 개최 (NIA 대구본원)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2017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및 ICT솔루션 전시회 (서울 포스트 타워) | 16 | 17 |
| 18 | 19 ▶ 대구 공공기관 공동사회공헌활동 (대구 노인복지회관)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디지털통 다시보기

2013

| | |
|------------|------------|
| 11월 NOV | 12월 DEC |
|------------|------------|

2014

| | | | | | | | |
|-----------|------------|------------|------------|-----------|-----------|-----------|-----------|
| 1월 JAN | 2월 FEB | 3월 MAR | 4월 APR | 5월 MAY | 6월 JUN | 7월 JUL | 8월 AUG |
| 9월 SEP | 10월 OCT | 11월 NOV | 12월 DEC | | | | |

2015

| | | | | | | | |
|------------|------------|-----------|-----------|-----------|-----------|-----------|---------------------------------|
| 1월 JAN | 2월 FEB | 3월 MAR | 4월 APR | 5월 MAY | 6월 JUN | 7월 JUL | 특집호 2015년 대구제주기방이전 특집호 |
| 10월 OCT | 11월 NOV | | | | | | |

2016

| | | | | | | | |
|------------|--------------------------|------------|-----------|-----------|-----------|-----------|-----------|
| 1월 JAN | 2·3월 통합본 FEB & MAR | 4월 APR | 5월 MAY | 6월 JUN | 7월 JUL | 8월 AUG | 9월 SEP |
| 10월 OCT | 11월 NOV | 12월 DEC | | | | | |

* NIA 뉴스레터 디지털 통(通)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